

얼굴 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이  
과제 수행능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cial Attra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Clothing on The Task Performance Evaluation**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정 명 선\* · 김 재 속**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yung-sun Chung\* · Jae-sook Kim**  
(2001. 7. 24 접수)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re exist physical attractiveness stereotype, 'what is beautiful is good' on the evaluation of stimulus person's task performance in present Korea. This study also examine the effects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stimulus person's clothing and subjects' sexes on the task performance evaluation. The index of the physical attractiveness of this study was the facial attractiveness judged by 30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appropriateness of clothing was manipulated by 4 types of clothing perceived appropriate for two assumed situations by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ree female faces having high, medium, and low attractiveness were simulated with the same body dressed four types of clothing using CAD system, and a total of 12 stimulus persons were created.

A total of 524 male and female(262 of male, 262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from 3 universities in Kwangju, Korea were participated as subjects in this study.

The design for the experiment was a  $3 \times 4 \times 2$  randomized factorial, with three levels of facial attractiveness (high, medium, low), and four types attire(formal-masculine, formal-feminine, casual-masculine, casual-feminine), two kinds of context (job interview, dating) in which perceptions were occurred.

The data were analysed using MANOVA, Duncan test and F-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timulus person's facial attractiveness exert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evaluation of task performance in both of two assumed situations ( $p < .001$ , respectively).
2. The appropriateness of stimulus person's clothing did not influence on the task evaluation in both of two assumed situations.
3. The gender of subjects did not influenced the task performance evaluation in both of two assumed situations.

**Key words:** facial attractiveness(physical attractiveness), appropriateness of clothing, task performance evaluation; 얼굴 매력성(신체적 매력성), 의복 적절성, 과제 수행능력 판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신체적 외모는 성 정체성과 더불어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가장 분명하고 접근 가능한 개인적 특성이며 (Lewis & Walsh, 1978),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신체적 외모가 개인의 생활에 불평등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된다 (Zanden, 1987).

Umberson과 Hughes(1987)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외모 요소들 중 특히 신체적 매력성이 인종, 성, 연령 등과 함께 불평등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한편, Zanden(1987)은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은 전통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흑인에 비해 백인이 누렸던 혜택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으며, 인종이나 성에 근거한 차별은 법률과 교육에 의해 감소했는지라도 신체적 매력성에 근거한 차별은 감소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였다.

신체적 매력성이 인기(popularity)의 중요한 결정 요소라는 사실은 Perrin(1921)에 의해 최초로 관찰되었고, 이것이 Waller(1937)의 데이트 상대와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의 동기를 제공하였다(Webster & Driskell, 1983). 그러나, '아름다운 것이 좋다'는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Miller(1970), Dion 등(1972)에 의해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Feingold, 1998), 주로 미국을 위시한 북아메리카에서, 의류학 분야보다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더 많이 수행되어져 왔다. 신체적 매력성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가 신체적 매력성이 얼굴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주로 앨범 사진을 평가시켜 조작한 총체적인 얼굴 매력성을 신체적 매력성 지표로 이용해왔으며(Brown, Cash & Noles, 1986; Perkins & Lerner, 1995), 다수의 연구가 많은 사회적 상황에서 신체적 매력성 후광효과가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왔다. 예컨대, Webster와 Driskell(1983)은 신체적 매력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가장 일반적인 결론이 세상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해 더 유쾌하고 만족을 주는 장소라는 것이며, 아름다운 사람들이 측정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회

적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는 신체적 매력성에 근거한 차별의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신체적 매력성이 인간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사람들이 외모 향상을 위해 매년 패션에 엄청난 돈을 소비하고 있는 현실은 사람들이 신체적 매력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착의자의 신체적 외모 향상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의류학 분야에서의 신체적 매력성과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명선과 김재숙(2001)은 최근 취업면접을 위시한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신체적 외모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신체적 매력성 향상을 위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성형수술을 하는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고, 얼굴 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을 조작한 실험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도 대상의 특질 판단에서 신체적 매력성 후광효과가 작용한다는 것 즉,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 과정에서 의복 적절성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는 신체적 매력성이 대상의 과제수행능력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즉 신체적 매력성 후광효과가 존재하는가와 이 관계에서 의복 적절성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얼굴 매력성을 신체적 매력성 지표로 사용해 온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확인한 Perkins와 Lerner(1995)의 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얼굴 매력성을 신체적 매력성 지표로 하였고, 의복의 적절성을 의복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의복 적절성 조작을 위해 과제상황을 채용을 위한 면접 상황과 이성과의 교제상황으로 설정하였으며, 얼굴 매력성, 의복 적절성 및 피험자의 성별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상호 작용하여 지각대상의 과제별 수행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코자 하였다.

###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 1) 얼굴 매력성

지각대상의 얼굴이 지각자에 의해 높은, 중간인, 낮

은 매력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서의 얼굴 매력성 수준을 의미한다.

## 2) 의복 적절성

지각 대상의 의복이 연구에서 설정한 채용 상황과 교제상황에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과제 수행능력 판단

지각 대상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두 상황의 목표인 채용과 이성과의 교제에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지각자의 판단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신체적 매력성이 수행능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

Landy와 Sigall(1974)은 개인의 신체적 매력성이 수행자와 수행능력 모두의 평가 방법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수행자의 신체적 매력성과 전혀 무관한 과업수행능력이 평가될 때도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Webster와 Driskell(1983)도 피험자들이 신체적 매력성을 일반적인 능력의 지각과 관련시켰다는 것을 발견했고,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의 과제를 더 잘 수행할 것이라는 매우 일반화된 기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Dipboye 등(1975)의 연구에서도 관리직을 위한 전문적인 면접자들이 능력이 같았을 경우 매력 없는 응모자들보다 매력적인 응모자들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Dipboye 등(1977)에 의한 후속 연구도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Chung과 Leung(1988)은 면접 관리자들에게 응모자들의 신체적 매력성에 관한 정보만 제시되었을 때 매력적인 응모자들을 고용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의 수행에 관한 정보가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외모는 채용 의사 결정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히고, 신체적 매력성은 응모자의 수행능력이 부적절할 때만 채용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함으로써 신체적 매력성은 제한적 효과를 갖는다고 결론지었다. Cash 등(1977)도 매력적인 여성들은 비서직 등의 성에 적절한 직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유리하지만,

성에 적절치 않은 관리직에서는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Wilson 등(1985)도 남성 지배적인 전문직을 추구할 경우 매력적인 여성들이 기피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Cash와 Janda(1984) 역시 업무가 남성적인 것이었을 때 매력적인 여성들의 수행 결과가 분명히 더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Dion 등(1972)은 얼굴 매력성이 직업과 결혼에서의 성공과 같은 생활성과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Feingold(1988)는 연구자들이 신체적 매력성이 최대의 효과를 갖는 맥락을 로맨틱한 상호작용으로 선정했다는 것을 주시하였고,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신체적 매력성에 더 큰 가치를 둔다고 밝혔다. Reis, 등(1980)은 신체적 매력성이 이성과의 첫 상호작용의 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상호작용의 질과 만족도 평가와도 상관되었음을 발견하였다. Dawn(1995)은 남성들이 매력적인 여성들은 성적으로 유능하다는 사회적, 성적 고정관념을 소지하며 매력적인 여성과 만났을 때 남성들의 행동에 이러한 태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남성들의 지각과 행동을 검토할 때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Stroebe 등(1971)은 이성간 상호 매료되는 것이 우리 사회 생활의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성을 매료하는 중요한 결정 요소들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어왔고, 여성들이 개탄하면서도 받아들이는 신념들 중 하나가 남성들이 주로 여성의 신체적 외모에 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Wiederman과 Hurst(1998)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잠재적 배우자의 신체적 매력성에 실제로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Buss(1989) 역시 다수의 문화에서 잠재적 파트너의 매력성이 여성들에게보다는 남성들에게 더 중요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2. 의복 적절성이 지각에 미치는 영향

Rosencranz(1972)는 상황의 인지는 특정한 시각적 단서에 의해 발생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단서들 중 하나가 의복이라고 하였다. Workman(1984~85)은 한 개인이 착용한 의복의 상황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타인들이 그에 대해 형성하는 인상에 영향을 주며, 의복의 적절성은 착의자가 상황적 요구를 인지하고 그것에

응답하고 있다는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

Rabolt와 Drake(1984~1985, 1985)는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남성 지배적 직업에 참여함에 따라, 여성들은 직업에 적절한 의복을 탐색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관한 충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주시하였다. Forsythe 등(1985)은 관리직을 얻으려는 여성들이 채용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채용의사 결정에 미치는 의복의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전문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착의해야 할 것인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Belleau 등(1988)은 직장 여성들이 남성들의 three piece 정장 같은 특정한 직업복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한 의복 문제를 갖게 되었고, 패션의 영향이 직업 상황을 위한 의복의 적절성 결정에 어려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Heilman과 Saruwatari(1979)는 관리직을 얻고자 하는 여성들은 가능한 한 남성처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Forsythe 등(1984)은 의복의 남성성이 채용 담당자의 응모자의 관리적 특성에 대한 지각과 채용 의사결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Solomon과 Anand(1985)는 스커트 정장이 처음으로 전문직을 얻기 위한 통과 의례의 상징으로 기여한다고 하였고, Dillon(1980)은 남성 인사관리 담당자들이 여성 인사관리 담당자들보다 테일러드 정장이 전문직 여성에게 더 적절한 것으로 지각했으나, 그들 모두 바지보다 스커트를 더 선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Johnson 등(1994)은 직장 여성들이 너무 남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성 역할과 너무 유사한 외모를 제시하는 것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김광경(1991)은 극단적인 남성적 스타일의 수트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에게조차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승진(1997)의 연구에서도 연구자의 예측과 달리 바지형 유니폼 수용이 극히 부정적이었던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Forsythe 등(1985) 한 여성이 관리직에 응모할 때 너무 여성적이기보다는 너무 남성적으로 보이는 위협을 감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였다. 김원옥(1984)은 전문직, 사무직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근무복은 스커트 차림의 정장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남미우와 강혜원(1996)은 직업 면접 및 출근 상황에서는 기본 형태의 정장이, 격식을 차리지 않

는 상황에는 캐주얼한 의복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Dillon(1980)은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도록 양육되어져 왔다는 것과, 그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여성으로서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적인 측면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주시했고, 의복은 여성의 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된다고 보았다. McCullough 등(1977)은 특히 청년 후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흥미를 갖게 되고, 많은 여성들이 성적 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의복을 이용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여성들이 그러한 의복 품목을 빈번하게 입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Cunningham과 Weis(1985)도 여대생 피험자들이 데이트를 위해 의복을 선택할 때 중간 정도로 섹시한 의복을 선호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Lewis와 Johnson(1989)도 여성의 의복 선택은 섹시해 보이는 것 자체보다는 당시의 패션과 매력성 표준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문헌고찰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도 지각 대상의 얼굴 매력성을 지표로 한 신체적 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이 적어도 직업관련 상황과 이성과의 교제 상황에서 대상의 능력과 성과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는 것과 그 영향은 대상의 성, 지각자의 성 및 판단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헌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3. 연구 가설

가설 1: 자극인물의 얼굴 매력성은 자극인물의 과제 수행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자극 인물의 의복 적절성은 자극인물의 과제 수행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피험자의 성별은 자극 인물의 과제 수행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은 상호작용하여 자극인물의 과제 수행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피험자의 성별은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의복 적절성과 상호작용하여 자극 인물의 과제 수행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실험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3(얼굴 매력성의 정도: 높은, 중간, 낮은 매력도) × 4(적절한(바지, 스커트)/부적절한(바지, 스커트) 차림) × 2(과제 상황: 채용 상황/교제 상황) 요인설계로 하였다.

#### 2. 실험 자극물 제작과정

1) 4학년 여대생 60명의 정면 얼굴을 촬영, 9cm x 12cm 크기로 인화한 후 4학년 여대생 20명으로 구성된 판단자 집단에게 제시하여 지각된 얼굴 매력성을 1(높은), 2(중간인), 3(낮은)으로 표시케 하였고, 각 범주에서 판단자의 일치도가 가장 높은 1명씩의 얼굴 사진을 자극인물의 얼굴로 선정하였다.

2) 4학년 여대생 30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 집단에게 설정된 상황에 적절한 의복범 주를 설문한 결과에 근거하여 설정한 전문직 취업 면접상황에 적절한 의복으로 정장을, 이성과의 교제 상황에 적절한 의복으로 캐주얼한 차림으로 결정하였다. 의복의 남성성-여성성에 따라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바지 차림과 스커트 차림으로 분류하여 각 범주당 4벌씩의 의복을 예비조사 집단에게 제시하여, 두 상황 각각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1벌씩 총 4벌의 의복을 선정하였다.

3) 자극 인물의 체형을 통제하기 위해 얼굴 매력성 조사를 위한 사진 촬영에 참여 했던 60명의 여대생 중 가장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 1명을 착의 모델로 선정하였고, 착의 모델에게 선정된 4벌의 의복을 착용시켜 정면 사진을 촬영하였다. 착의모델의 신장은 165cm, 체중 52Kg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4) 매력성의 수준이 다른 3개의 얼굴에 4유형의 의복을 착용한 1명의 착의 모델의 신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체시켜 합성한 후 10cm × 16cm 크기로 출력하였

다. 결과적으로 총 12개의 자극인물 사진이 제작되었다.

#### 3. 측정 도구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12개의 자극 인물 사진들 중 1개의 사진이 부착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으며, 질문지는 채용을 위한 면접 상황과 이성과의 데이트 상황에 사용될 2종으로 제작하였다. 2종의 질문지의 내용은 상황 시나리오만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1) 자극 인물의 수행 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을 측정하기 위해 '사진 속의 여성이 응모한 관리직에 채용될(오늘 만나기로 한 남성과 앞으로의 교제에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7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2)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조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매력 있는-매력 없는', '멋 있는-멋없는', '아름다운-아름답지 않은'의 3문항을 7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3) 자극 인물이 착용한 의복의 적절성 조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진 속의 여성이 착용하고 있는 의복이 채용(데이트) 상황에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7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4) 피험자의 성별, 나이, 전공 등 피험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한 질문을 제시 하였다.

#### 4. 피험자

본 실험을 위한 피험자는 3, 4학년 남녀 대학생 총 552명으로 하였고, 24개의 실험 조건에 남녀 동수(남학생 276명, 여학생 276명)를 무작위로 할당하였다. 피험자들의 전공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험자의 연령은 21세부터 28세까지로 파악되었다.

#### 5. 실험 절차

제작된 자극 인물의 얼굴의 얼굴 매력성 수준과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1999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에 걸쳐 본 실험의 피험자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여대생 1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은 1999년 7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에 걸

〈표 1〉 얼굴 매력성 조작 검증 결과

얼굴매력성 수준	상 (N=177)	중 (N=173)	하 (N=174)	전체 (N=524)	F-Value
매력성 지각 평균(표준편차)	4.28(1.23) A	3.19(1.05) B	2.45(1.08) C	3.31(1.35)	118.09***

\*\*\*p<.001 ABC: Duncan Test 결과

쳐 실시하였으며, 각 피험자에게 24개 실험 조건들 중 1개의 실험 조건에 해당하는 질문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피험자들로 하여금 질문지에 부착된 여성의 사진과 제시된 상황 시나리오를 보고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피험자들로부터 수집된 질문지 552부 중 응답이 불완전한 28부를 제외한 524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s 7.5.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변량 분석, Duncan test, F-test를 실시하였다.

7. 실험 자극 인물 조작의 타당도 및 측정도구의 신뢰도

1) 얼굴 매력성 조작의 타당도 검증

얼굴 매력성 조작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7점 척도로 구성된 3분항에 대한 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3수준의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간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의복 적절성 조작의 타당도 검증

〈표 2〉에서 보면, 채용 상황에서는 포멀한 의복이 캐

〈표 2〉 상황별 의복 적절성 조작 검증 결과

상황	의복 범주	평균(SD)	F값
채용 상황	적절한	포멀한바지 정장	3.97(1.44)A
		포멀한스커트 정장	4.00(1.40)A
	부적절한	캐주얼한바지 차림	2.40(1.29)B
		캐주얼한스커트차림	2.20(1.15)B
교제 상황	적절한	캐주얼한바지 차림	3.01(1.56)B
		캐주얼한스커트 차림	3.00(1.49)B
	부적절한	포멀한바지 정장	4.48(1.36)A
		포멀한스커트 정장	4.06(1.46)A

\*\*\*p<.001수준에서 유의함 AB: Duncan Test 결과

주얼한 의복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지각되었고 (p<.001), 교제 상황에서는 캐주얼한 의복이 포멀한 의복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지각되었다(p<.001). 바지 차림과 스커트 차림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IV. 결과 및 해석

1. 얼굴 매력성, 의복 적절성, 성별이 수행능력 판단에 미친 영향

독립변인을 얼굴 매력성, 의복 적절성, 성별로 하고, 종속변인을 과제수행능력 판단으로 하여 상황별 3원 변량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채용 상황에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이 자극 인물의 과제수행능력, 즉 채용 가능성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미친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p<.001), 자극 인물의 의복 적절성, 피험자의 성별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각 변인들의 상

〈표 3〉 얼굴 매력성, 의복 적절성, 성별이 수행능력 판단에 미친 영향 (n=262)

상황	종속변인	독립변인	F값
채용 상황	채용 가능성 판단	얼굴 매력성	15.165***
		의복 적절성	.592
		성별	.918
		얼굴 매력성×의복적절성	1.087
		얼굴 매력성×성별	1.006
		의복적절성×성별	3.630
		얼굴매력성×의복적절성×성별	.277
교제 상황	교제성공 가능성 판단	얼굴 매력성	52.407***
		의복 적절성	.000
		성별	.465
		얼굴 매력성×의복적절성	.507
		얼굴 매력성×성별	.191
		의복적절성×성별	.886
		얼굴매력성×의복적절성×성별	.009

\*\*\*p<.001

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교제 상황에서도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이 자극 인물의 과제 수행능력, 즉 교제 성공 가능성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미친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 $p<.001$ ), 자극 인물의 의복 적절성, 피험자의 성별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각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은 자극 인물의 수행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나, 자극 인물의 의복 적절성과 피험자의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두 상황 모두에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이 자극 인물의 과제 수행능력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의복 적절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주시된다. 우선 성과 중심 상황에서 자극 인물의 의복 적절성이 수행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신체적 매력성과 의복의 적절성이 각각 채용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던 Bardack과 McAndrew(1985)의 결과와 다르며, 채용을 위한 면접 상황에서 여성 응모자의 의복 적절성이 신체적 매력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Johnson과 Roach-Higgins(1987)의 결과와도 다르다. 이러한 결과를 최근 대학생들이 패션의 추세에 따라 캐주얼한 의복을 착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시간, 장소, 용도에 적절한 의복 규범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혹은 자극 인물의 의복보다는 얼굴 매력성에 초점을 두어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캐주얼한 의복을 수용하는 추세가 있더라도 직장에는 특정한 의복 표준이 있다고 볼 때(Kelley et al., 1976), 또한 젊은이들이 채용을 위한 면접시 정장을 위시하여 보다 더 보수적인 의복을 착용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채용가능성 판단에 미

치는 의복 적절성 효과의 유무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험자를 대학생이 아닌 실제 채용 담당자로 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교제 상황에서 자극 인물의 의복 적절성이 자극 인물의 교제 성공 가능성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 역시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보다는 얼굴의 매력성에 초점을 두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남녀 모두 그 상대가 신체적으로 매력적일수록 더 호감을 갖고 미래의 데이트 상대로 원한다는 것을 밝힌 Walster 등(1966)의 연구, 신체적 매력성이 이성들에 대한 매력의 가장 강력한 결정 요소라고 밝힌 Curran과 Lippold(1975)의 연구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피험자의 성별이 자극 인물의 채용 가능성, 교제 성공 가능성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신체적 매력성 효과라는 측면에서 아무런 성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Byrne 등(1968)의 연구와 일치하며, 그 관리직 채용을 위한 선발 과정에서 응모자의 성별과 무관계하게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남녀 응모자들이 관리직에 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던 Dipboye 등(197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일면을 보여준다. 이는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남녀 모두에게 널리 공유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체적 매력성이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얼굴 매력성이 과제 수행능력 판단에 미친 주 효과

〈표 3〉에서 과제 수행능력 판단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얼굴 매력성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기 위해, 상황별로 얼굴 매력성 수준간 Duncan의 사후 검증과 F-test를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얼굴 매력성 수준에 따른 과제 수행능력 판단 차이

(n=262)

상황	종속변인	얼굴매력성 수준			전체	F-값
		상	중	하		
채용상황	채용 가능성 판단	4.36(1.29)a A	4.02(1.02) B	3.39(1.11) C	3.92(1.21)	15.165***
교제상황	교제 성공 가능성 판단	4.60(1.30)a A	3.76(1.40) B	2.63(1.05) C	3.68(1.49)	52.407***

a: 평균(표준편차) \*\*\* $p<.001$  ABC: Duncan Test 결과

먼저, 채용 상황에서 자극 인물의 채용 가능성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은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 .001$ ),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이 높을수록 피험자는 자극 인물의 채용 가능성을 더 높게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극 인물의 교체 성공 가능성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 역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p < .001$ ), 역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극 인물에 대한 피험자의 교체 성공 가능성이 더 높게 판단되었다.

채용상황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의 과제를 더 잘 수행할 것이라는 일반화된 기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던 Webster와 Driskell (1983)의 연구, 개인의 신체적 매력성이 수행능력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던 Landy와 Sigall(1974)의 연구, 전문적인 면접자들이 능력이 같았을 경우 매력없는 응모자보다 매력적인 응모자를 더 선호했다고 밝힌 Dipboye Fromkin Wilback(1975), Dipboye 등(197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거나 상통된다. 그러나 매력적인 여성들이 관리직에서는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발견했던 Cash 등(1977)의 연구, 업무가 남성적인 것이었을 때 매력적인 여성들의 수행 결과가 더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밝힌 Cash와 Janda(1984)의 연구, 매력적인 여성은 '아름답지만 머리가 나쁘다'는 고정관념과 더불어 연상되기 때문에 남성 지배적인 전문직에서 기피된다고 밝힌 Wilson 등(1985)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관리직 채용가능성 판단에 미친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은 긍정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교체 상황에서 얼굴 매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과제수행능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 결과는 신체적 매력성이 최대의 효과를 갖는 맥락이 로맨틱한 상호작용 상황이라는 점에(Feingold, 1988)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자극인물의 얼굴 매력성은 자극인물의 과제 수행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으나, 자극인물의 의복 적절성, 피험자의 성별이 각각 자극인물의 과제 수행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와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얼굴 매력성과 의

복 적절성, 얼굴 매력성과 피험자 성별, 의복 적절성과 피험자의 성별이 상호작용하여 자극인물의 과제 수행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와 가설 5도 지지되지 않았다.

##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대상의 수행능력의 판단에도 작용하는가를 실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선행 연구(정명선·김재숙, 2001)에서의 특질 판단에 이어 수행능력의 판단에서도 '아름다운 것이 좋다'는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름다운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도록 사회화 되어왔기 때문에 이성과의 교체 상황에서 신체적 매력성에 끌리는 것은 당연히 한다해도, 신체적 매력성에 근거하여 누군가를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매력적인 얼굴을 가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더 관리직에 채용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된 결과는 신체적 매력성이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며, 특히 청소년이 선행으로 하는 패션모델이나 광고 모델, 혹은 TV탤런트는 주로 신체적 미를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편, 특질의 판단의 경우와는 달리 이 관계에서 의복 적절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를 의복 자체가 지각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의복이 사람들로 하여금 직업을 구하고 지키는 데에 도움을 주지만 지위를 놓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인관계에서 의복을 포함한 외모관리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류학 분야 중 특히 의복 디자인 분야의 관심이 개인의 타고난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착시를 유발시키는 방법에 놓여지고, 오늘날처럼 거대한 패션산업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

본 연구가 피험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했고, 실제 인



물이 아닌 사진을 이용했다는 제한점을 지니지만 한국 사회에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신체적 매력성이 가장 중요하다거나, 겉모습만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신체적 매력성을 위시한 신체적 외모가 인간의 심리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적인 얼굴과 신체 조건을 지니는 여성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타고난 신체적 외모 조건이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 외모향상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김광경(1991). 남성적·여성적 의복이 직장여성의 직업특성과 직업 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원옥(1984). 직업여성의 의복행동과 직업만족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미우·강혜원(1996). 관찰자의 의복 태도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2), 241-256.
- 양승진(1997). 사무직 여성을 위한 유니폼스타일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21(5), 933-945.
- 정명선, 김재숙(2001). 얼굴 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이 특질판단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2).
- Bardack, N. R., & Mcandrew, F. T.(1985). The Influence of Physical Attractiveness and Manner of Dress on Success in a Simulated Personnel Decis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5, 777-778.
- Belleau, B. D., Miller, K. A., & Church, G. E.(1988). Maternity Career Apparel and Perceived Job Effectiven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2), 30-36.
- Byrne, D., London, O., & Reeves, K.(1968).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Sex, and Attitude Similarity on Interpersonal Attraction. In Feingold, A.(1998).
- Cash, T. F., Gillen, B., & Burns, D. S.(1977). Sexism and Beautyism in Personnel Consultant Decision Mak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301-310.
- Cash T. F., & Janda, L. H.(1984). The Eye of the Beholder. *Psychology Today*, 46-52.
- Chung, P. P., & Leung, K.(1988). Effects of Performance Information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n Managerial Decisions About Promo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8(6), 791-801.
- Cunningham, F., & Weis, D.(1985). Perception of Sexy Clothing by College Females. In Lewis, L., & Johnson, K. K. P.(1989).
- Dawn, P. (1995). Self-Presentation by Men to Attractive and Unattractive Women : Tactics of Ingratiation, Blasting and Basking(Flirting, Gender). Dissertation Abstracts Onlin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0668.
- Dillon, L. S.(1980). Business Dress for Women Corporate Professional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2), 124-129.
- Dion, K. K., Berscheid, E. & Walter, E.(1972). What is Beautiful is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3), 285-290.
- Dipboye, R. L., Arvey, R. D., Terpstra, D. E.(1977). Sex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f Raters and Applicants as Determinants of Resume Evalu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3), 288-294.
- Dipboye, R. L., Fromkin, H. L., & Wilback, K. (1975). Relative Importance of Applicant Sex, Attractiveness, and Scholastic Standing in Evaluation of Job Applicant Resum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0(1), 39-43.
- Feingold, A.(1988). Matching for Attractiveness in Romantic Partners and Same-Sex Friends: A Meta-analysis and Theoretical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4(2), 226-235.
- Feingold, A.(1998). Gender Stereotyping for Sociability, Dominance, Character, and Mental Health: A Meta-analysis of Findings from the Bogus Stranger Paradigm. *Genetic,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4(3), 253-270.
- Forsythe, S. M., Drake, M. F., & Cox, C. E.(1985). Influence of

- Applicant's Dress on Interviewer's Selection Decis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0(2), 374–378.
- Forsythe, S. M., Drake, M. F., Cox, C. A., & Jr.(1984). Dress as An Influence on the Perceptions of Management Characteristics in Wome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112–121.
- Heilman, M. E., & Saruwatari, L. R. (1979). When Beauty is Beastly: The Effects of Appearances and Sex on Evaluations of Job Applicants for Managerial and Nonmanagerial Job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23, 360–372.
- Johnson, K. K. P., Crutsinger, C., & Workman, J. E. (1994). Can Professional Women Appear Too Masculine? The Case of Neckti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2), 27–31.
- Johnson, K. K. P., Roach—Higgins, M. E.(1987). Dress and Physical Attractive— ness of Women in Job Interview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3), 1–8.
- Kelley, E., Jones, S., Hatch, D. A., & Nelson, R.(1976). How to Help Your Students Be Successful at Job Hunt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November, 32–365.
- Landy, D., & Sigall, H.(1974). Beauty is Talent: Task Evaluation as a Function of the Performer's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3), 299–304.
- Lewis, L., & Johnson, K. K. P.(1989). Effect of Dress, Cosmetics, Sex of Subject, and Casual Inference on Attribution of Victim Responsibil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1), 22–27.
- Lewis, K. N., & Walsh, W. B.(1978). Physical Attractiveness: Its Impact on the Perception of a Female Counsel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210–216.
- McCullough, E. A., Miller, M. F. M., & Ford, I. M. (1977). Sexually Attractive Clothing: Attitudes and Us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2), 164–170.
- Rabolt, N. J., & Drake, M. F.(1984–1985). Reference Person Influence on Career Women's Dr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2), 11–19.
- Reis, H. T., Nezlek, J., & Wheeler, L.(1980).Physical Attractiveness i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4), 604–617.
- Perkins, D. F., & Lerner, R. M.(1995). Single and Multiple Indicators of Physical Attractiveness and Psychosocial Behavior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3), 268–297.
- Rosencranz, M. L.(1972). Clothing Concepts. New York: Macmillan Company, 51.
- Solomon, M., & Anand, P.(1985). Ritual Costumes and Status Transition: The Female Business Suit as Totemic Emblem.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2, 315–318.
- Streobe, W., Insko, C. A., Thompson, V. D., Layton, B. D.(1971).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Attitude Similarity, and Sex on Various Aspect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1), 79–91.
- Umberson, D., & Hughes, M.(1987). The Impa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Achievement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27–236.
- Walster, E., Aronson, V., Abrahams, D., & Rottmann, L.(1966). The Importance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D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508–516.
- Webster, M., & Driskell, J. E.(1983). Beauty as Statu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 140–65.
- Wiederman, M. W., & Hurst, S. R. (1998). Body Siz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Body Image among Young Adult Women: Relationships to Sexual Experience and Sexual Esteem. *Journal of Sex Research*, 35(3), 272–281.
- Workman, J. E.(1984–85). Effects of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Attire on Attributions of Personal Disposition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1), 20–24.
- Zanden, J. W.(1987). *Social Psychology*(4th ed.). New York: Random House, 50.